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악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일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일 초청 리사이틀

11월 19일 19시 남한산성아트홀

11월 25일 20시 KBS아트홀

브람스 <소나타 2번 A장조>, 바흐 <파르티타 3번 E장조>, 비탈리 <샤콘느 g단조>, 멘델스존 <현악 심포니 1번>, 메이어 <Mantras>(19일), 바흐 <파르티타 2번 D장조>, 슈베르트 <소나타 A장조>, 비탈리 <샤콘느 g단조>, 비발디 <사계> 중 '겨울', '겨울'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아시아 최연소 입상을 비롯해 바흐 국제 콩쿠르 입상, 줄리아 클렘프키 장학금 경연대회 1위, 오렌지 카운티 영뮤지션 콩쿠르 대상,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일의 수상경력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다. 사실 너무 오래전 일기에 이제와 콩쿠르 수상 이력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했지만, 무엇보다 연주자를 설명하기에 이보다 객관적인 수식은 없을 듯하다. 줄리어드 음대를 수석졸업하고 매네스 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오스카 셉스키와 펠릭스 갈라미언, 나탄 미스타인, 조지 카스트 등 이제는 정말로 전설이 된 바이올리니스트들을 사사했다.

“오스카 셉스키의 리사이틀에 크라이슬러가 관중으로와 들었다고 해요. 그 때 즉흥적으로 셉스키가 크라이슬러를 무대로 불러 피아노를 쳐달라고 제안해 연주를 해줬다는 일화를 오스카 셉스키로부터 들었어요. 이제는 전설이 된 그 세대들과 함께 공부하며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것까지 많은걸 배웠죠. 하루는 오스카 셉스키의 집으로 가례슨을 받게됐는데, 그가 즉석에서 브람스 협주곡의 반주를 피아노로 쳐주는 거예요. 그 반주에 감탄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연주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그 시대 음악가들은 바이올린 하나만 가르쳐주기보다는 모든 음악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음악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많이 주었어요.”

그와 오스카 셉스키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아들 에릭 셉스키까지 이어가고 있었다. 에릭 셉스키는 이승일이 참여하고 있는 뮤직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우리나라에서 함께 연주도 펼쳤다. 오늘날의 세대는 그저 이야기로, 그리고 몇 남아있지 않은 음반과 영상으로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직접 경험한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일. 이후 그는 미국 로체스터 필하모닉 악장을 시작으로 핏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랜드 라피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샤폰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과 LA 오페라 산타 바바라 챔버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하며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갔다.

“미국의 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니온, 즉 노조가 굉장히 강해 규칙이 잘 정해져 있어요. 지휘자의 권한에 힘이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단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음악가들에게도 힘이 주어져요. 물론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음악적인 완성도를 위해 연습시간이 더 필요할 때도 연주자들의 의견으로 정해진 시간 이상의 연습을 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들에 연주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장치들이 많아 음악만 생각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에서의 오케스트라 생활, 전설적인 연주자들의 가르침 외에도 미국 할리웃 모션 픽처스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 경험 역시 이승일을 설명해주는 특별한 이력이다. <아바타>, <매트릭스>, <미션 임파서블>, <캐리비안의 해적>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할리웃 영화의 음악을

레코딩하는 오케스트라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통적인 클래식을 넘어서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의 음악으로 재탄생 시키며 음악으로 시간을 이어나가고 있다.

“녹음을 하러 스튜디오에 가면 오케스트라 규모에 깜짝 놀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단원으로 참여하죠. 갑자기 어려워지는 기교적인 변화도 많은 작품들인데, 그 자리에서 악보를 주고 바로 녹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에는 실력 있는 사람만 모이게 돼요.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하이퍼츠에게 배웠던 사람도 있고, 오케스트라 수석, 대학 교수 등 상당한 실력자들이 모여 함께 작업하게 되죠. 정통 클래식도 연주하지만 이런 영화음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마음의 사람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작업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한 풍부한 음악적 이야기로 이승일이 오는 11월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와 소나타를 담은 음반을 발매 할 예정이다. 음악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60세가 되면 이 작품을 녹음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에는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바람을 간직한 체 음악생활을 이어가던 중 좋은 기회를 얻어 드디어 음반을 발매하게 된 그는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영원하던 일이었기에 집중도 있는 작업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

“동료에게 이 작품을 녹음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니 녹음을 하고 나서 들어보고 아니라는 판단에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바흐의 무반주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시게티는 80세에 이 작품을 녹음했는데, 육체적인 한계로 비브라도 넓고 경직된 느낌도 있지만 음악적으로는 너무 훌륭해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시게티는 그 작업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풀어냈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이 작품을 모두 외웠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억나요. 이 작품은 마치 언어 같죠. 화성의 진행에 따라 연주하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틀이 갖춰진 이 작품은 그 안에 자유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이 곡을 통해 제 생각을 많은 청중과 나누고 싶어요.”

음반뿐만 아니라 이승일은 오는 11월 19일과 25일 양일간 경기도 광주와 서울에서 직접 청중을 만날 예정이다. 음반발매 기념으로 초청 리사이틀을 갖는 바흐의 무반주 작품을 비롯해 그가 이끌고 있는 수작필 카메라타와 함께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음반과 연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중과의 만남을 준비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일. 전설적인 음악가들의 영향 그리고 현대적인 음악적 경험으로 수백 년의 시간을 관통할 그의 음악이 리스너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글 | 정소연**

